

D  
|  
30

# 수능영어 마지막 처방전

PolyQube X PPL English

## 제 1권

1. 실전 대비 역대 최다 Q&A
2. 예열지문

# 저자소개

## PolyQube × PPL 영어팀

Polyqube는  
서울 상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영어교육/영어영문학 전공자들로 구성되어있는  
수능 영어 콘텐츠 제작팀입니다.  
팀명의 어원은 polycube, “쌓기 나무”로  
양질의 자료와 독보적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학생들의 영어 실력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TEAM PPL[PREMIUM PRIVATE LESSON]은  
과외와 학원에 종사하고 있는  
서울권 소재 대학 재학생 연합  
사교육 종사자 모임입니다.  
김과외 각 과목 상위권 선생님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교육시장의 혁신을 꿈꾸고 이루기 위해  
차별화 된 수능 대비 교재 제작과 더불어  
교육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자료소개

## 제 1권

1. 실전 대비 역대 최다 Q&A

2. 예열 지문

수능 때 밥은 어떻게 좋을까요? 모의고사는 어떤걸 풀어봐야 할까요? 지문 읽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떡하나요? 폴리큐브쌤들과 피피엘 쌤들이 학생들에게 수능 직전 가장 많이 받았던 받았던 질문, 그리고 이 건 꼭 알았었으면 하는 수능 대비 사항들에 대한 QnA를 담았습니다. 두번째 파트에는 시험 직전 위밍업 할 수 있는 예열지문을 담았습니다.

## 제 2권

1. 5개년 기출 어법 총정리

2. 빈칸 문제 찍기 특강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의 6월, 9월, 수능 5개년의 어법 8문제에 대한 폴리큐브, 피피엘 쌤들의 핵심 풀이를 담았습니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2018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의 빈칸 문항의 정답 통계를 기반으로, 시간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찍을 수 있는 번호를 예측해 드립니다.

# 1. 실전 대비 역대 최다 QnA

**Q. 듣기 풀때 건드릴만한 독해 문항 추천해주세요!**

**A. 25, 26, 27 다 풀면 18, 19, 20번으로!**

가장 쉬운 문제를 공략하는 것이 좋겠죠? 시험지를 뒤로 넘겨 일치/불일치 내용인 25, 26, 27, 28번을 먼저 풀고 다시 앞으로 넘겨 18, 19, 20번을 풀어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듣기가 끝난 후 바로 옆 페이지에서부터 독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 수능장은 훨씬 더 긴장되는 상황이기에, 듣기/독해가 모두 탄탄한 학생들께만 추천드리며, 이 방법이 자신과 맞는지를 연습해보시기를 권장 드려요.

**Q. 듣기 문제, 실수할까봐 두려워요..**

**A. 듣기와 독해를 넘나드는 상황을 유의하세요!**

일단 본인의 듣기 파트 정답률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 보세요. 만약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다 맞는 학생은 듣기 문제를 푸는 중 독해 문제를 풀려고 할 텐데, 듣기와 독해 문제를 넘나드는 상황만 주의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평균적으로 한 두 문제 이상씩 꼭 틀리는 학생이라면, 절대 독해는 풀 생각 마시고, 듣기에만 오롯이 집중하세요. 그리고 평소에 dictation을 꾸준히 해보세요.

숫자나 통계에 약하다면 간단한 암산이 포함될 수 있는 25번은 풀지 않는 것을 권해요. 또, 듣기 16-17번에서 첫번째 들려줄 때 문제를 다 풀었다면 두번째 들려줄 때 다른 지문에 비해 비교적 독해 난이도가 평이한 43번-45번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Q. 문제 푸는 순서와 시간이 궁금합니다**

**A. 본인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결론은, '확실한 정답은 없다' 입니다. 학생들별로 어렵게 느끼거나 시간을 오래 쓰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만, 소위 **킬러라고 불리는 빈칸, 순서 삽입 유형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먼저 풀기 시작**해서 확실한 정답을 낸 뒤, **킬러 문제들을 건드리는 것이 시간 압박이 조금이나마 덜 느껴지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풀이법을 찾아보길 권합니다. 수능 현장에서는 심리적 압박감이 평소보다 더하여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평소에 어려워하는 문제유형을 파악한 후 모의고사를 최소 네 번 정도 풀어보세요. **어려운 유형을 먼저 푸는 방법과 쉬운 유형을 먼저 푸는 방법 중 심리적 압박감이 덜한 방법을 택하면 실제 수능에서 시간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문장 삽입 문제, 제시문을 먼저 읽는게 좋은가요?

A. 네. 그러나 함정에 주의하세요.

네. 제시문을 먼저 읽으면 역접을 나타내는 단어나 주제어에 대한 긍정, 부정어 등의 큰 힌트를 짧은 글만 읽고 파악할 수 있기에 문제 풀이, 내용 파악에 용이하며 효율성이 높습니다. 또한 제시문의 내용을 읽고 앞, 뒤에 나올 내용을 미리 유추한 후 본문을 읽으면 정답의 단서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허나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절대로 **제시문 내용을 선지에 임의로 넣어보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어려운 주제거나 제시문 앞, 뒤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어디에 넣어도 어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선은 제시문을 읽으시고, 제시문 속에 지시어나 대명사가 있다면 그것이 지칭하는 것이 앞쪽 어디에 나와야 할지를 예측해보거나, 제시문 앞쪽에 내용 전환 접속사가 있는 경우 제시문 앞에 어떤 어조나 내용이 나와야 할지, 또한 제시문의 내용이 어떠한 주장의 예시라면 제시문 앞은 제시문의 주장, 제시문이 주장이라면 제시문 뒤는 그 주장의 예시라는 점을 기억한 채로, 글을 처음부터 읽어 나가며 흐름이 자연스럽게 읽히는 부분이나 예측하기에 맞았던 부분을 답으로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풀이 방법입니다.

Q. 빈칸 문제, 지문 먼저 읽나요 빈칸 먼저 읽나요?

A. 빈칸 먼저 읽어 가이드 라인을 세웁시다!

개인적으로는 빈칸을 먼저 읽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빈칸 문장을 먼저 읽게 되면 해당 제시문에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간혹 글을 읽다가 중심 내용을 잡지 못할 때 빈칸 문장을 기준으로 글의 중심 내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Q. 빈칸 위치마다 문제풀이 방법이 다른가요?

A. 테크닉 보다는 본질을 따라갑시다!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빈칸이 어디에 있든, 빈칸 문제는 모두 '지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독해를 해야합니다. 지문에서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즉 계속해서 **paraphrasing되고 있는 하나의 theme**을 주요하게 잡고 글을 읽으세요. 글의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theme이 결국 빈칸 속 내용일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도 수월할 것입니다.

## Q. 지문 읽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떡하나요?

A. 수식어는 빼고 아는 단어와 전체 문맥에 기반해 뜻을 유추해보시고, 나머지 지문은 침착히 읽어주세요!

아는 단어에 우선 집중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르는 뜻을 추론하세요. 세상에 수많은 영단어가 존재하고, 그 모든 단어의 뜻을 암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단어를 외워도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한 단어가 가진 여러 의미들 중 내가 모르는 뜻으로 쓰였을 수도, 해당 지문의 맥락에 맞춰 조금 다른 의미로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극도로 긴장되는 수능장에서는 아는 단어의 뜻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더구나 당연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앞뒤 문맥을 바탕으로 단어의 의미를 유추해 문장을 해석해 보면, 충분히 의미 파악이 가능합니다. 즉 단어의 의미를 오직 내가 '외운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닌, 지문 전체의 의미를 기반으로 유연하게 추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복잡해보이는 구문에 모르는 단어까지 나왔다면, 수식어는 생략하고 의미를 해석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모르는 단어가 있는 문장, 도저히 해석이 불가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나머지 지문을 읽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어휘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는 법을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34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 Q. 지문 읽다 읽히지 않는 문장을 만나면 어떡하나요?

A. 욕심을 버리세요!

지문을 읽다가 문장이 읽히지 않는 경우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문 전체 내용을 전부 이해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반복되는 소재를 하나 잡는다는 생각으로 읽어보세요. 인용구가 쓰였다면, 그 인용구의 의미에 주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장이 읽히지 않을 때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글이 머릿속에서 계속 빙빙 돌 수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It's not that I'm so smart,  
it's just that I stay with problems longer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

- 알버트 아인슈타인

## Q. 점심 메뉴는 뭐가 좋을까요?

A. 소화에 무리가 없던 평소에 먹는 음식과 초콜릿이요!

저는 밥, 소고기뭇국, 계란말이, 불고기를 싸갔습니다. 수능 날 밥이 잘 안 먹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것을 대비해 따뜻하게 잘 넘어가는 소고기뭇국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지나서, 영어 및 탐구 과목 시간까지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단, 배불러서 졸린 것도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배부르지 않을 만큼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톡툭이 먹을 수 있는 간식도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페레로로쉐가 초콜릿과 견과류가 모두 들어있어 좋았습니다.

생 채소와, 많은 양의 단백질이 들어간 메뉴는 소화에 무리를 줄 수 있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화에 가장 좋은 것은 죽이라고 생각하나, 죽보다도 더 좋은 것은 본인이 평소에 드시면서 문제가 없었던 음식이면 좋을 것 같고,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 초콜릿을 섭취해주시면 뇌 회전에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이 있는 날에는 속이 편해지면서 기력을 회복해주는 사골국을 자주 먹곤 했습니다.

## Q. 수능 당일, 시험 전 단어암기 VS 지문 읽기?

A. 지문을 읽어 독해력을 예열하세요!

단어 암기보다는 지문 독해 연습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평소 자주 헛갈리던 어휘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새로운 단어를 시험 직전까지도 암기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수능 직전에 외운 단어가 시험 지문에 나온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지만, 직전에 연습한 독해력은 시험에서 반드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수능 영어 영역은 본질적으로 암기력보다도 독해력을 확인하는 시험이니까요!

또한, 수능영어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일단 문맥에 기반한 해석이 원활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라는 것이 당일의 컨디션에도 꽤나 영향을 받아요.** 아무래도 언어를 읽는 것이다 보니 단어를 몰라도 문맥을 통해 글이 술술 읽히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시험의 긴장감이 본격적으로 닥치기 이전에, 뇌가 영어 독해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지문을 다시 찬찬히 읽으면서 독해력을 예열하는 준비를 하는 것을 더 추천해요.

## Q. D-30, 마지막 정리로 뭘 할까요?

A. 오답 회독과 매일매일을 수능 당일 처럼 보내도록!

새로운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고 스스로를 수능에 최적화된 상태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작성한 오답 노트를 회독하며 이와 같은 문제가 수능 때 출제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주 3~4회 실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설 모의고사를 응시하며 나만의 문제 풀이 순서, 와 방법을 확립하셔야 합니다. 영어 시험 전에는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후 실전 처럼 연습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을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빈칸/순서/제목 등 자신이 자주 틀리는 이유를 분석하는 등 유형별 단점을 보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 수능장과 동일하게 시간을 세팅해 두고, 전년도 수능을 풀며 동시에 OMR카드를 마킹 해보는 것도 시험 시간을 관리하는데 유용할 것입니다. 영어는 아침에 풀기보다는 수능 시험때와 비슷하게 점심 이후에 공부하는 것이 더욱 실제 감각을 익히는데 효과적입니다.

## Q. D-30, 사설 모의고사 VS 평가원 기출?

A. 평가원을 마스터 하고 사설을 건드려라!

이전에 기출을 제대로 회독한 적이 없다면 남은 기간 동안 6평/9평/수능만이라도 제대로 학습하고 수능을 응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모든 기출을 다 풀어보았다면 사설을 풀어보아도 괜찮습니다. 고난도 사설 문제를 푸는 것에 익숙해지면 상대적으로 수능 문제가 쉽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어 수능 문제를 풀 때 부담감을 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 풀이 시간 단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은 어디까지나 사설일 뿐이므로, 고난도의 사설 문제들에 본인이 생전 처음 보는 성적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음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가원 기출을 다 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설을 푸는 것은 오히려 좋지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수능 문제를 내는 기관은 평가원이지, 사설 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예열의 필요성>

시합 전 스트레칭을 충분히 한 운동선수와 그렇지 않은 운동선수 중 누구의 성적이 더 좋을까요?

수능영어는 '집중력과'낮선 지문과의 싸움입니다. 밥을 먹고 졸리고, 이전 시험의 실수로 멘탈이 무너졌을 수도 있을 상황에 낮선 지문에 온전히 집중하는 일은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시험 시작 전 집중도를 끌어 올리고 낮선 지문을 미리 경험하기 위해 평가원 기출이 아닌 지문(2023 학년도 사관학교 영어영역 지문)으로 예열지문을 준비했습니다.

### - 이렇게 활용하세요 -

1. 예열지문을 볼 때는 차분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때 미리미리 문장과 연결성을 생각하면서 읽는 훈련을 하고 지문이 읽히지 않는다고 해서 멘탈이 흔들리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합니다.
2. 영어라는 과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과목이든 시험 시작 전에는 차분하고 단단한 멘탈을 가지고 시험지를 받아야 합니다.
3. 가능하면 지문만 구성되어 있게끔 편집해서 예열지문을 준비합니다. 문제를 풀 정도로 여유롭지 않을 겁니다. 또 문제 풀다가 틀리면 멘탈 흔들릴게 뻔하잖아요
4. 만약 예열지문의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 보인다면 단어 공부도 할겸 미리 모르는 단어를 적어갑시다.

10.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development of the moldboard plow turned Europe's natural endowment of fertile land on its head. People who lived in Northern Europe had long endured difficult farming conditions, but now it was the north, not the south, that enjoyed the best and most productive land. Starting about a thousand years ago, thanks to this new plow-based prosperity, cities of Northern Europe emerged and started to flourish. And they flourished with a different social structure from that of cities around the Mediterranean. The dry-soil scratch plow needed only two animals to pull it, and it worked best with a crisscross plowing in simple, square fields. All this had made farming an individualistic practice: a farmer could live alone with his plow, oxen, and land. But the wet-clay moldboard plow required a team of eight oxen—or, better, horses—and who had that sort of wealth? It was most efficient in long, thin strips often a step or two away from someone else's long, thin strips. As a result, farming became more of a community practice: people had to share the plow and draft animals and resolve disagreements. They gathered together in villages. [4점]

\* moldboard plow: 벧 달린 쟁기 \*\* crisscross: 십자형의

- ① socio-economic changes in Northern Europe caused by the moldboard plow
- ② difficulties of finding an appropriate farming method for barren land
- ③ various reasons farming was difficult for Northern Europeans
- ④ social support required to invent the moldboard plow
- ⑤ potential problems of using animals to plow a field

1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Like the old advice for married couples, "Don't ever go to bed angry," don't knowingly let students leave the lesson angry or upset. Students' frustrations can stem from difficult content or technique, personal problems, fatigue, and yes, sometimes annoyance with their teacher. Regardless of what might be the cause, don't ignore their emotions. If you see tears starting to well up, stop everything and talk. Avoid overreacting and taking their frustration personally. A certain amount of frustration is a normal part of learning any new skill. When they look discouraged, give them a glass of water, a sympathetic ear, and a tissue. If they have misinterpreted you or don't understand the concept, strip it down to its barest essentials. If your instincts tell you something is bothering a student, don't be afraid to probe a little. Most students will say, "I'm fine," but even when they do, they almost always appreciate your caring. Follow through with a call to the parents if you are concerned.

- ① 학생과의 상담 내용을 누설하지 말라.
- ② 학생의 감정을 헤아려 적절하게 대하라.
- ③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분명히 알려주라.
- ④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라.
- ⑤ 학생에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라.